



'달토끼'와 'BIG NOISE' 멤버들. 나관훈, 전동진, 박경민, 한원희, 박우균, 남민우, 장영준 (왼쪽부터) <광주청소년문화의 집 제공>

우리들만의

상상력 담아 음반 냈어요



광주 청소년 밴드 '달토끼' '빅노이즈' 한보리·오영목 지도하는 '에듀포엠' 참여 가사 쓰고 곡 만들고 콘서트 기획까지

우균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가을, 또래 친구들인 전동진(17·광주전자공고 1년·드럼), 남민우(17·보컬), 한원희(17·광주예고 1년·키보드), 장영준(18·광주전산고 1년·기타) 등 '달토끼' 멤버들과 함께 '에듀포엠 콘서트'(이하 에듀포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포엠 콘서트'를 열어왔던 '시 하나 노래 하나'와 광주청소년문화의 집이 함께 진행한 '에듀포엠'은 아이들에게 음악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꾸린 프로그램이었다. 단순히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회이었다. 한보리, 오영목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주축이 돼 아이들에게 직접 시를 쓰고, 곡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 빨아들였고, 여기에 어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상상력'을 담아 곡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성공리에 콘서트를 마쳤다.

'에듀포엠'은 당초 콘서트 개최를 끝으로 마무리

될 계획이었지만 성과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음반을 발매하고, 쇼케이스까지 진행했다.

이번 앨범 작업은 아이들에게 '신기한 경험' 이었고 다양한 장비가 가득한 녹음실은 '환상의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음악하는 것'의 짜릿함을 느꼈다. 이번 음반에는 '달토끼'와 'BIG MIC', '나르샤'의 음악이 담겨 있다. '자전거' '뽕송', '부탁', '연애' 등 수록곡 12곡은 아이들이 모두 직접 작사·작곡했다. 이번 음반에 참여한 'BIG MIC'은 힙합그룹이다. 프로듀싱과 랩을 맡고 있는 나관훈(19), 랩과 비트 메이킹을 담당하는 박경민(19·동성고 3년), 보컬 김창환(19·) 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에 이름을 'BIG NOISE'로 고쳐 활동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의미있었던 건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점이다. 노래를 직접 만들고 음악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이들은 '멋진 뮤지션'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부모님을 설득해 진로를 결정했다.

'달토끼'는 지난 1월 전국청소년실용음악경연대회에서 이번 음반에 실린 자작곡 'My dream is music'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팀은 오는 5월 5·18 30주기를 맞아 열리는 '제 1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 청(靑)'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공동 작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앨범 프로듀서를 맡은 한 씨는 앨범 재킷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길잡이 노트와 음악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이었는데 아이들은 눈을 까맣게 반짝이며 스스로의 가슴 안에 있던 노래의 씨앗을 깨워 싹을 틔웠다"고 밝혔다.

광주청소년문화의 집 안미정씨는 "아이들이 '에듀포엠'에 참여하고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많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래의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광주디자인센터 내달 1~30일 건축디자인 경연의 장 개척

광주디자인센터 하우스엔(단장 윤광호)은 오는 4월1~30일 국제건축자재 디자인 공모전 '하우스엔'을 개최한다. 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데 모으는 디자인 경연의 장이다. 공모 분야는 세면대, 욕조 등 욕실용품, 내·외장 바닥재(Art Wall) 패턴, 레인지 후드, 가전제품, 실내·외 조명 및 LED 조명, 침구 등 패브릭용품, 방화문 등 실내·외 문, 주택관련 기타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이다. 출품작 수는 제한이 없으며, 국내외 발표된 적

이 없는 순수 창작물에 한한다. 공모전 시상은 금상 1명에게 미화 5천 달러의 상금과 특전, 은상 3천 달러, 동상 1천 달러 등 총 40여명에게 상금과 부상 등이 주어지게 된다. 수상작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되며, 일부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상업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하우스엔 국제디자인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hausand-contest.com)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5월 17일. 문의 062-611-516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현덕 작 '매화'

꽃잎들의 봄잔치

광주신세계 22일까지 '부유하는 꽃잎들' 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2일까지 화사한 꽃그림을 모은 '부유하는 꽃잎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현덕, 김홍주, 김향록, 류준화, 엄정순, 유근택, 윤기연, 이진원, 정재호, 허상립, 한수정, 허은희씨가 참여해 꽃을 테마로 한 평면, 입체 등 드로잉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한수정씨는 수채 물감으로 얇은 꽃잎의 아름다

움을 화폭에 담았고, 류준화씨는 연꽃 핀 연못을 헤쳐나가는 작은 배를 형상화했다. 또 김향록씨는 쇠를 이용해 나무와 나무 그림자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강현덕씨는 다양한 문양으로 매화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문학자 서용좌씨 소설·논문집 동시 출간

독일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소설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용좌(64·전 전남대 독문과 교수)씨가 소설집 '반대말 비슷할말'(전남대학교출판부 펴냄)과 논문집 '창작과 사실'을 동시에 출간했다. 소설집 '반대말 비슷할 말'은 늦깎이 소설가의 십년에 걸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소설집에는 단편 '죽지 않았음', '네번째의 죽음', '마리아 막달레나', '종편 '부나비', '태양은' 등 12편의 중·단편을 엮었다. 논문집 '창작과 사실-양심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고찰 1983~2009'은 제복에서 알수 있듯이 서씨가 그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발표한 연구성과를 엮은 것이다. 서씨의 전공분야인 하인리히

빌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페터 슈나이더, 파울 첼란 작품연구 등 학회지와 잡지 등에 발표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독일어 원문도 실렸다. 광주 출신인 서씨는 전남여중교와 이화여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독어교육과, 전남대 독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독어독문학회 부회장, 한국하인리히학회회장을 역임했다. 장편소설 '열하나 조각그림'과 연작소설 '희미한 인(生)', '종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lmanpyo Bangsuje' (칠만표 방수제) featuring a tiger and promotional text for a water-repellent product.

Advertisement for 'Gukrakjeon Namgol-dang' (극락전 남골당) featuring a temple scen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cultural center.